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49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12,20-33)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요한 12,20-33

선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훌륭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아주 못된 녀석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말을 잘 알아듣고 성실한 제자들은 늘 못된 제자 때문에 불만이었습니다. "저런 녀석 때문에 우리 위신이 꺾인단 말야." 어느 날 제자들이 작당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 못된 녀석을 내보내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스승님을 떠나겠습니다." 스승이 "그래, 잘 가거라"하자, 제자들이 "아니, 어째서 성실히 일한 저희들은 매몰차게 보내시고, 저 못된 녀석만 그리 두둔하십니까?"하고 되물자, 스승은 "너희들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저 녀석은 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온종일 헤맬니다. 단 하룻밤일지라도 엄마 양과 떨어져 공포에 떨면서 밤을 지새울 새끼 양을 생각하면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을 것 같기에....

예수께서는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 창녀, 막노동꾼, 거렁뱅이들과 친구가 되어 사셨습니다. 고상한 바리사이들은 예수께 목자의 이웃 사람들처럼, 그의 가족들처럼 욕을 하고 비난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분을 본받는 삶, 비뚤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박해가 찾아오고, 비난하고 어리석다 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압력뿐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안일함, 무감각함, 게으름도 큰 몫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날려버리는 한 가지만 분명하게, 제대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오늘 복음 말씀에 드러나 있는 "바보의 약속"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지 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마련해 놓으마. 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이름과 연결된 고통이라면 내가 내 이름값을 하겠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너희는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의미는 바보 예수님의 약속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그 약속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고 예수님은 허튼소리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수원교구 3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 사순시기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수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기도, 희생, 성사생활을 통해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의 삶으로 응답하도록 합시다.
- ※ 3월은 성 요셉 성월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가정으로 구세주 예수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 요셉 성인의 침묵과 겸손, 그리고 희생을 묵상해 봅시다. 또한 우리들의 선종의 은혜도 청하도록 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탈출기 1,1-5,23

◆ 성경 퀴즈

*탈출 1,1-2,25까지 읽고 ()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으시오.

1. 이스라엘 자손들은 ()을 많이 낳고 늘어만 잤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이 ()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2. 이집트인들은 ()으로 그들을 ()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을 저장하는 성읍, 곧 ()과 ()를 짓게 되었다.
3. 파라오의 딸이 갈대 사이에서 데려온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는가?
4.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5.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께서 그들의 ()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을 기억하셨다.

*탈출 3,1-5.23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 모세는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으로 갔다.
7. 주님의 천사가 ()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8.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이니, 네 발에서 ()을 벗어라.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뵈기가 두려워 ().
9. 하느님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10. 하느님이 모세에게 준 세 가지 능력의 표징은 무엇인가?
11. 하느님이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우신 인물은 누구인가?
12.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을 들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들을 일으켰다. 그러자 백성이 ().

*도전 문제

탈출 3,7-12에서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이 소명 이야기는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발현, 부르심의 이유, 소명을 주심, 소명을 받들려 하지 않음, 하느님께서 도와 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심** 그리고 **징표**입니다. 모세의 소명 이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다른 예언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소명 이야기를 찾아 읽어봅시다.

기드온의 소명(판관 6,11-17), 이사야의 소명(이사 6,1-13), 예레미야의 소명(예레 1,4-13), 예제키엘의 소명 이야기(에제 1-3장)

◆ 말씀과 생활 나누기

모세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파라오의 딸의 총애와 이집트 지도층의 특권을 누리며 권력자의 입장을 경험하고,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노예인 동포의 고통과 투쟁을 경험함으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도 예정된 하느님의 섭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암흑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짧게 나누어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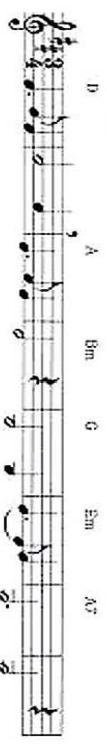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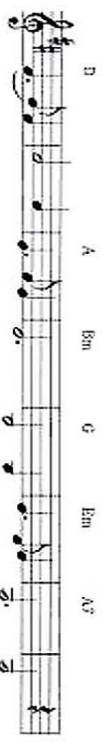
최서현
정정수
작곡
현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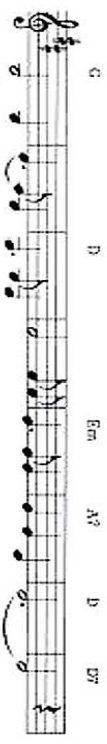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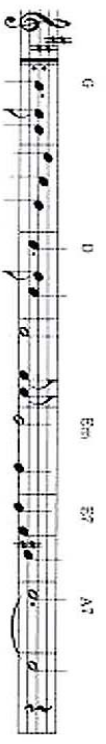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일렬 무야



중-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